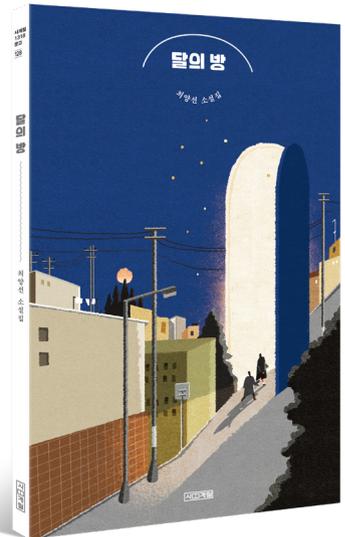

달의 방

작성 김소연, 박다솜, 정승연, 주해선 선생님(예민한 도서관)

예민한 도서관은 성평등 관점에서 어린이·청소년 책을 읽고, 연구하고, 나누는 현직 교사 모임입니다.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1318문고 128
최양선 소설집



■ 주 제 어 #여성청소년 #감정 #관계 #연대 #사회적소수자

■ 분 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도서 소개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라져 버리는 일이다. 나는 이상하게 그 말이 애뜻하고 슬펐다. 『달의 방』 본문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다, 그 일의 슬픔, 애뜻함, 신비로움을 느끼고, 그마저도 모두 빛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최양선 작가는 이 소설집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달의 방』에 수록된 다섯 작품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두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때때로 사라지고 싶은 순간을 느끼며 살아간다.

「일시 정지」 속 다연, 「달의 방」 속 정은, 그리고 「바람에 닿다」 속 재아처럼 늘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은, 사라지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이 정지되는 순간이나 달이 사라지는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어쩌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순간은 잠시 멈춰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달 없는 우주」 속 우주와 「붉은 조끼」 속 남주는 눈앞에 닥친 타인의 상황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대신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이다 보면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꿈꾸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목소리,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 안의 큰 바람, 결국 우리만의 달을 주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양선 작가의 다섯 편의 소설을 읽고, 누군가는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의 달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그 달이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일을 해내길, 모든 사람이 그 달을 바라보는 우주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학습 목표

등장인물의 감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한다.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7차시
읽기 전		-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기 중	일시 정지	- 신경 쓰여	2차시
	달의 방	- 달의 뒷면 - 친구가 된다는 것	3차시
	달 없는 우주	- #WITHYOU - 내가 만드는 뒷이야기 - 모두의 연대	4차시
	붉은 조끼	- 가족의 의미 -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필수노동자 - 생각 보석맵	5차시
	바람에 닿다	- 나만의 비누 -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사물 - 질병에 대한 시선	6차시
읽기 후		- 말하는 몸 - 영화로 만드는 이야기	7차시

1. 책을 읽기 전에 『달의 방』의 표지와 목차를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1)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 2) 『달의 방』에는 다섯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고 각각의 소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 봅시다.

2. 『달의 방』의 출판사 서평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달, 사라짐, 우리, 오늘

전혀 연관 없을 것 같은 단어들의 우주적인 연결, 『달의 방』 출간!

매일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공기, 해, 달, 별 같은 우주적인 것들, 그 우주적인 것들은 늘 우리를 둘러싸고 가만히 존재하지만, 가끔씩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 해가 사라지는 일식, 달이 사라지는 월식, 별들이 쏟아지는 유성우가 찾아오는 바로 그런 날들이다. 별들은 쏟아지며 그 존재감을 과시하지만 해와 달은 사라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해는 늘 낮에 떠 있고, 달은 늘 밤하늘에 있지만, 해도 달도 사라지는 날이 오면 우린 새삼스럽게 하늘을 본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곁에 있었음을 인식한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매일 곁에 있어서, 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의 곁에서 사라져 버린 사람. 어쩌면 그도 사라짐으로써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라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들을 생각하며 최양선 작가는 『달의 방』 속 다섯 작품을 써 내려갔다.

- 1) 여러분에게는 매일 곁에 있어서, 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의 곁에서 사라져 버린 사람이 있나요?
- 2) 위 출판사 서평의 맨 첫 줄에 적힌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달’, ‘사라짐’, ‘우리’, ‘오늘’을 넣어 짧은 글을 지어 봅시다.

【신경 쓰여】

1. 아래는 노래 ‘신경 쓰여’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다른 누군가가 신경 쓰인 경험이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불 꺼진 방 안 텅굴다 전화는 왜 잠만 잘 자고
 혹시 그냥 쪽 오려나 기다린 티 나면 안 되는데
 신경 쓰여 신경 쓰여 같이 있고 싶단 말이
 오늘 밤 나의 모든 걸 알아줘 너의 속마음을 보여줘
 속삭여줘 오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오늘 밤 나의 모든 걸 다 담아줘 너의 눈동자에 새겨줘
 입 맞추줘 오직 너의 눈빛에만 반짝이는 별이 될래
 문틈으로 스미는 너의 체온, 냄새
 이 순간 나 켈 예뻐야 해
 신경 쓰여 신경 쓰여 내가 보고 싶단 말이
 오늘 밤 너의 작은 인형이 될게 너의 주머니에 넣어줘
 날 데려가줘 어디든 너의 곁에 있고 싶어
 오늘 밤 나의 사랑을 다 먹어줘 너의 심장 속에 가둬줘
 영원토록 오 나만 보면 두근두근 오늘을 기억해줘
 오늘 밤 나의 모든 걸 다 담아줘 너의 눈동자에 새겨줘
 입 맞추줘 오직 너의 눈빛에만 반짝이는 별이
 너의 눈빛에만 반짝이는 내가 될래
 신경 쓰여 신경 쓰여

-‘신경 쓰여’, 비비

2. 아래 본문 내용을 다시 읽고 생각해 봅시다.

“김해리.”

다연이 입을 열자 해리가 고개를 들었다. 다연은 해리에게 다가갔다.

“어, 여기, 어떻게.”

해리는 달리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말을 뚝뚝 끊었다. 하지만 해리의 숨소리와 오르내리는 가슴팍, 그 안에 고여 있을 해리의 마음을 다연을 느낄 수 있었다.

다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젖어 들었다. 해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다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일시 정지』 (32~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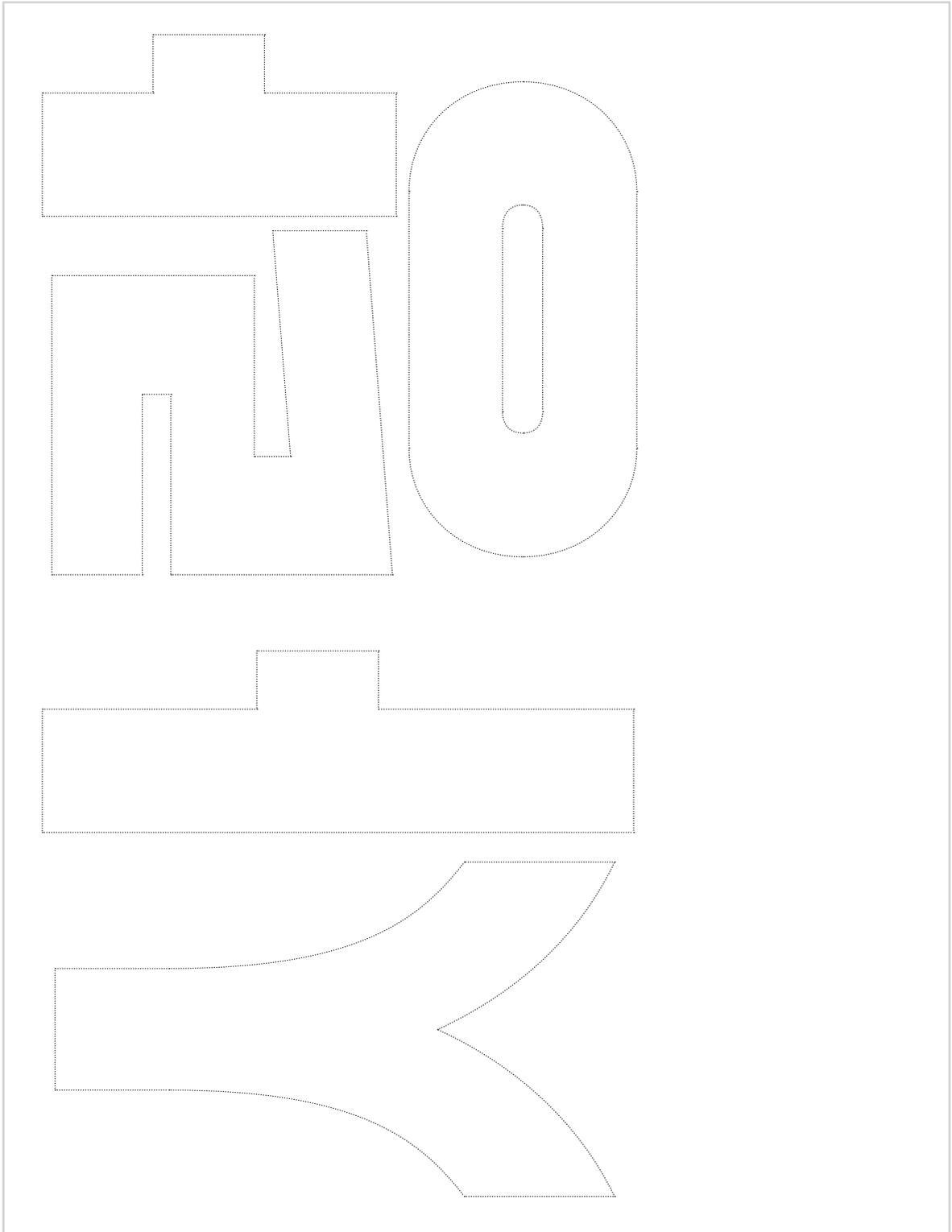
1) 해리는 달리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뚝뚝 끊어지게 말하고, 가슴팍이 오르내렸습니다. 지금 해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다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졌으며,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지금 다연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감정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제시된 감정일 때 나의 몸의 상태를 떠올리며 연결해 봅시다.

감정	얼굴	심장(맥박)	손(팔), 발(다리)	그밖에
부끄럽다	뜨거워진다	빠르게 뛴다	살짝 떨린다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린다.
편안하다				
화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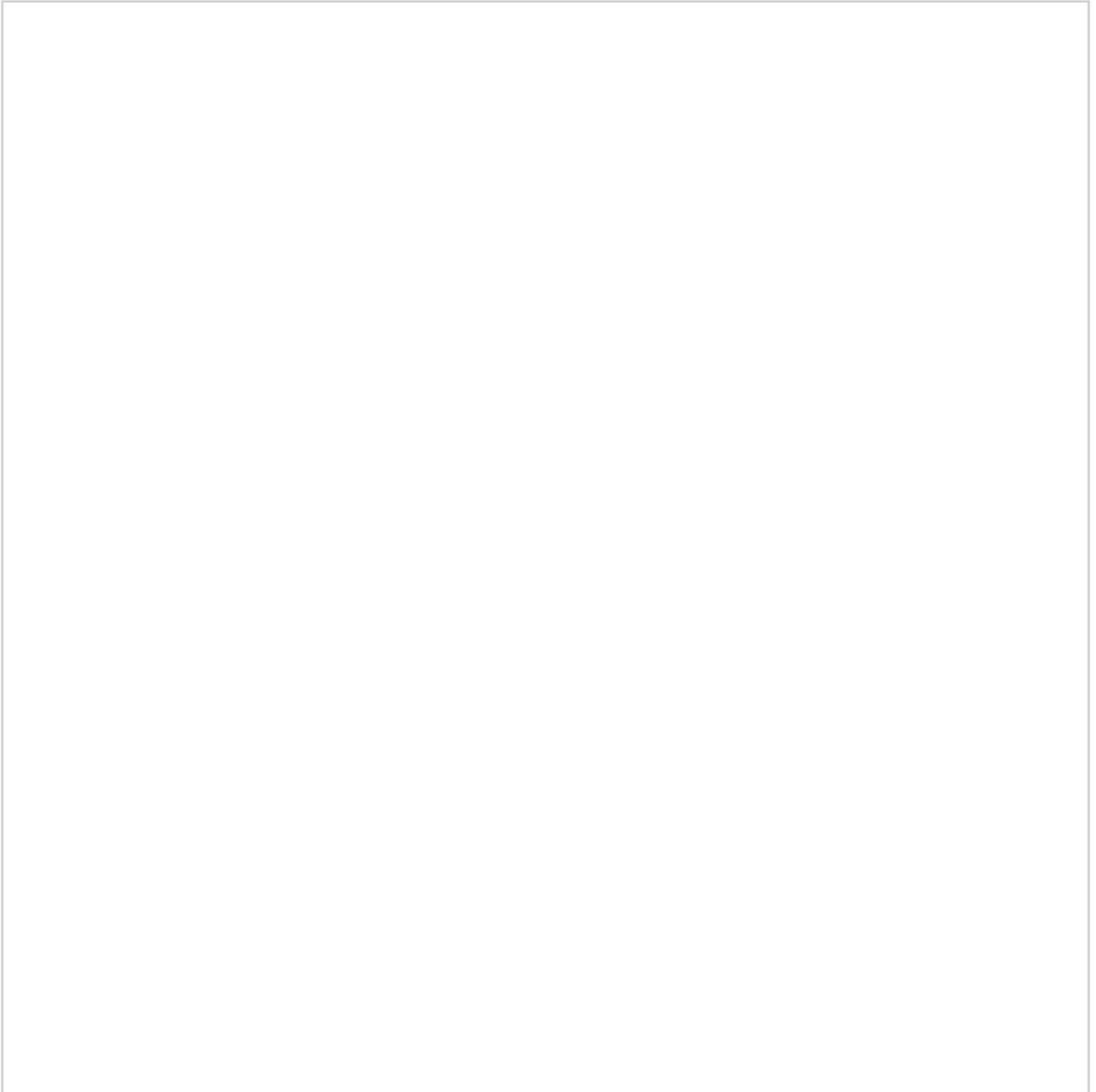
3.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음 그림을 젠탕글로 완성해 봅시다.
(누리집에서 '젠탕글 패턴' 검색)



【달의 뒷면】

정은이가 만난 아이는 달의 뒷면을 다음과 같이 상상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달의 뒷면은 어떤 모습인지 표현해 봅시다.

“지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달의 뒷면에 모여 있을 것 같아. 그들만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 같아. …(중략)… 공기가 없어도 중력에 방해받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어 살고 있지 않을까. 지구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어서…(후략)” 「달의 방」 (54쪽)



【친구가 된다는 것】

1. 정은이와 아이는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2. 나와 친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 사람과 언제, 어떤 일로 친구가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WITHYOU】

“혹시 나랑 같이 이 일을 도모하자고 연락한 거라면 난 싫어. 아까 말했듯이 난 그 일 다 잊었고 그럼도 시 작했고 잘 살고 있어. 더 이상은 떠올리고 싶지 않아.”

(중략)

“난 정말 좋아했어. 내가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처신을 잘 못 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아냐, 네가 아무리 좋아했대도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니? 그건 더 나쁜 거야. 네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 좋아한다는 감정이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잖아.”

영진이도 나도 조용했다.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기다려 주었다.

“이 일을 크게 만들면 결국, 우리가 당한 게 알려질 거야. 너 감당할 수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을 잘못했다고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어. 처음부터 내가 행동을 잘못된 거 라고. 늦은 시간에 왜 거기 있었냐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일 거야.”

『달 없는 우주』 (79, 81쪽)

1. 영진이는 과거의 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2. 영진이가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3. 여러분은 영진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내가 만드는 뒷이야기】

나는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지하철역으로 가 주세요.”

영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진이가 전화를 받았다.

(중략)

“영진아. 그날, 너 모른 척한 거. 정말 나 후회하고 있어.”

“.....”

“영진아.”

“이씨, F역이라고? 알았어. 나도 그리 같게.”

“고마워. 영진아. 거기서 만나.”

택시는 지하철역에서 멈추었다. 택시에서 내려 하늘을 쳐다보았다. 검은 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나는 밤의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역사 안으로 향해 있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달 없는 우주」(83~84쪽)

1. 영진이는 왜 지수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을까요?

2. 이야기에 나온 환하게 떠 있는 보름달을 떠올리며 뒷이야기를 써 봅시다.

【모두의 연대】

1. 내가 만약 영진이라면 지수에게 갔을까요?

2. 내가 만약 우주나 영진이라면 가해자에게 찾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알아 봅시다.

The infographic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The left section, titled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 (What is the reward system for reporting child and adolescent sexual offenses?), lists the target offenses: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 system that grants rewards to those who report offenders of child/adolescent sex trafficking, luring, or solicitation, or sexual intercourse with disabled children/adolescents to law enforcement). It specifies the target age as '아동·청소년 : 연나이 19세 미만 (2018년 기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The right section, titled '상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of serious offenses, citizens'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lists offenses and rewards: 제8조 (100만 원), 제14조 (100만 원), 제15조 (100만 원), and 제13조 (70만 원). It also provides reporting channels: '신고전화 ☎112' and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 연나이 19세 미만
(2018년 기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상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주세요.

대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포상금
제8조 범죄 :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 또는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	100만원
제14조 범죄 :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봉금, 고용 등)	
제15조 범죄 :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제13조 범죄 : 성 매수 행위, 유인·권유 행위	70만원

· 신고전화 ☎112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54962>)

4.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그루밍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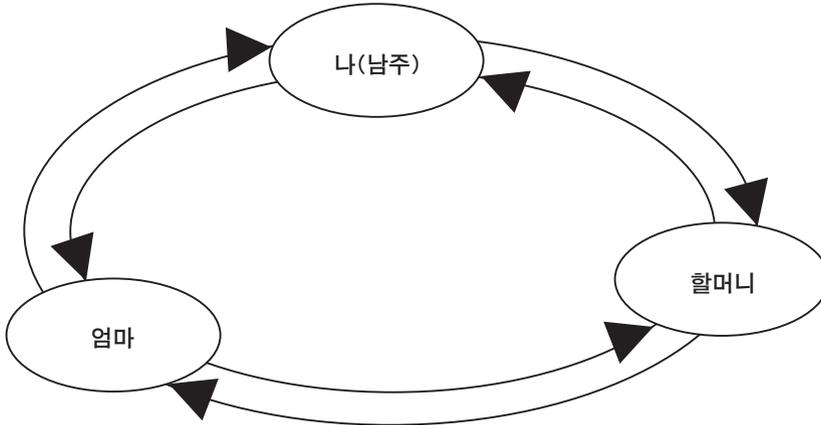
출처: 젠더온 '그루밍STORY'

2) 「달 없는 우주」와 영상을 보고 든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가족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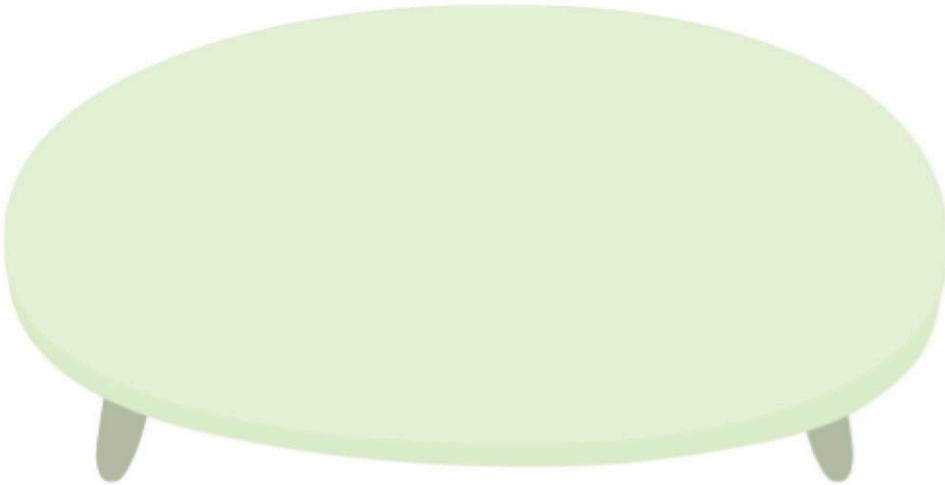
1. 「붉은 조끼」 속 가족들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남주’,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2. ‘할머니’는 ‘남주’에게 돈가스, 된장찌개, 달걀말이 등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내가 ‘남주’라면 늦은 밤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께 어떤 밥상을 차려 드리고 싶은지 그려 봅시다.



3. 「붉은 조끼」의 내용을 떠올리며,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필수노동자】

1. ‘필수노동자’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이르는 개념으로, 미국·유럽에서는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키 워커’(key-worker)로 부른다.

필수노동자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두되었다. 이들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시는 ‘할머니’도 필수노동자입니다. 책 90쪽에는 청소노동자가 겪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처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청소노동자’, ‘필수노동자’ 등을 검색해 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노동자들과 소설 속 노동자들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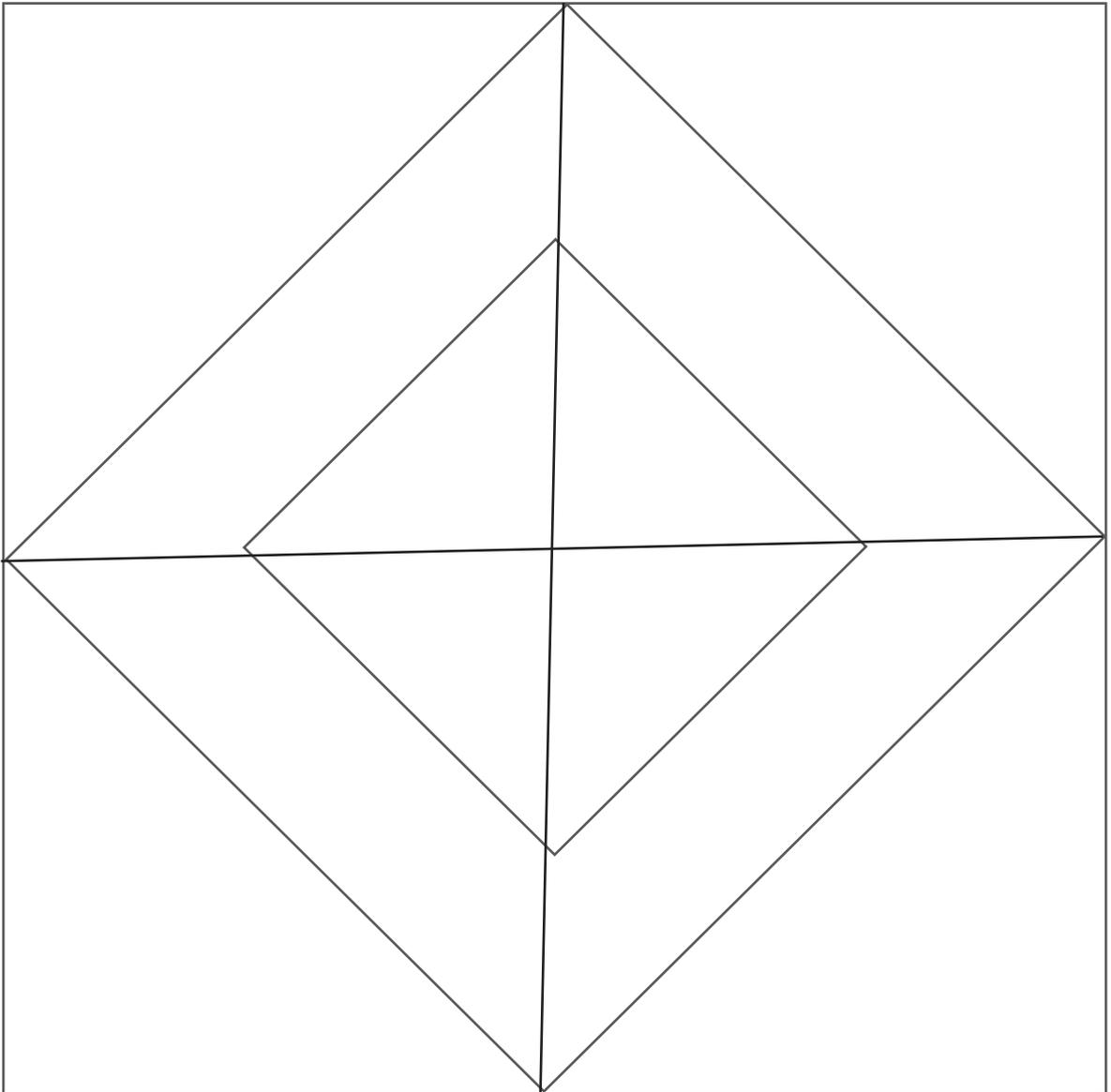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글을 써 봅시다.

- 선택① 필수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편지
- 선택②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글

【생각 보석맵】

「붉은 조끼」를 다시 읽고, 보석맵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눠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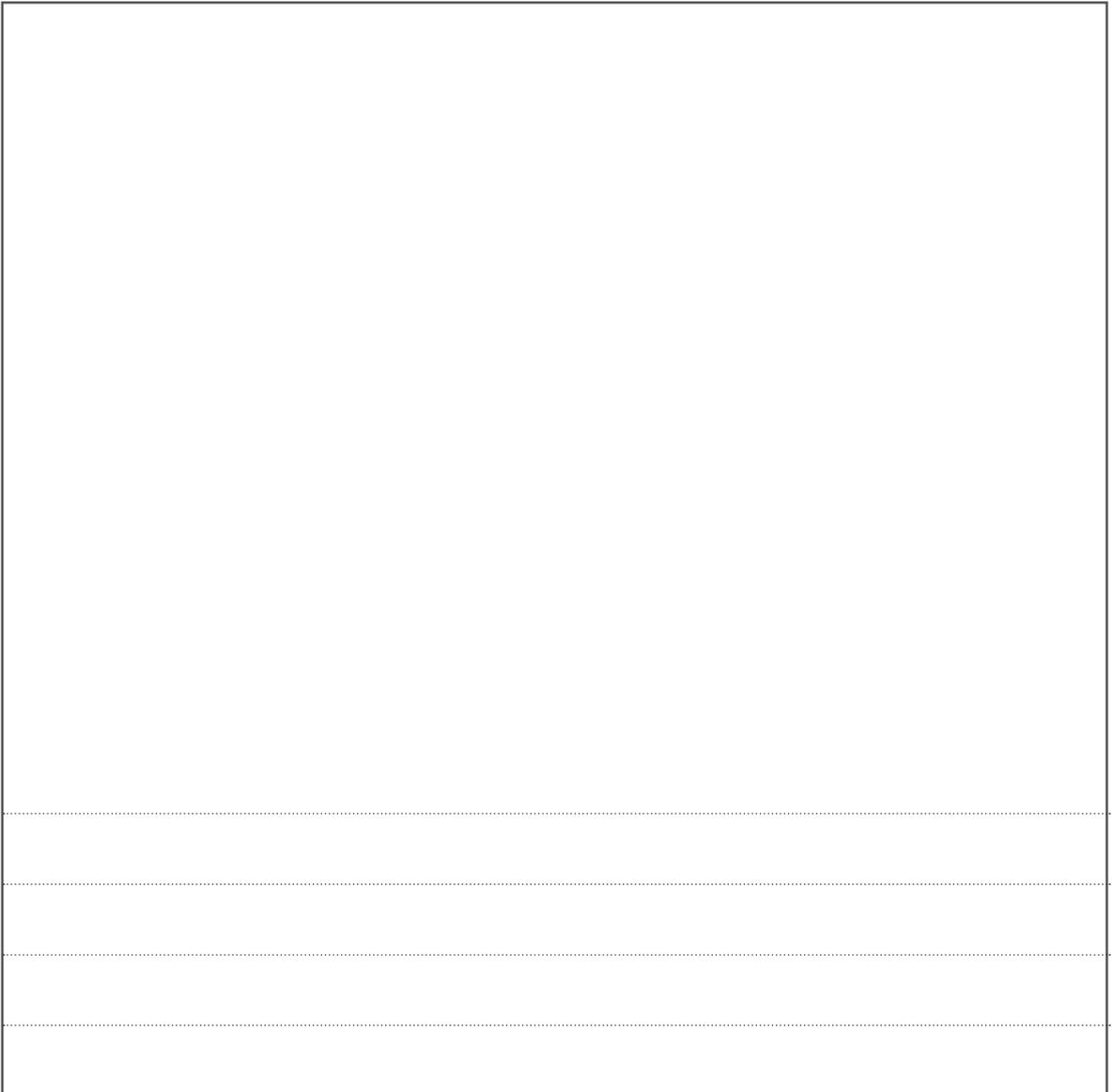
- ①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적습니다.
(예시) 내가 할머니라면 호박 할머니와 함께 파업에 참여했을까?
- ② 두 번째 칸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습니다.
- ③ 세 번째 칸에는 주제에 대한 친구의 생각을 적습니다.



【나만의 비누】

재아는 나오가 만든 비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만의 비누를 디자인하고 비누의 향과 느낌을 표현해 봅시다.

‘영롱한 노란빛을 띤 비누 안에는 국화꽃처럼 작은 꽃잎이 부풀어 있었다.
코를 가까이 대자 은은한 꿀 향이 풍겨 나왔다.’ 「바람에 닿다」(115쪽)



【질병에 대한 시선】

1. 재아와 나오의 대화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내 키가 어디까지 자라나 알고 싶어서.”

“넌 지금도 무척 큰걸? 더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야.”

“뭐야? 키 커지는 병이라도 걸린 거야?”

“맞아.”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

나오는 입을 다물었고 나는 민망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세상에 그런 병이 있는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멈추지 않고 자라기만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_「바람에 닿다」(126~127쪽)

1) 재아는 왜 나오의 대답을 듣고 민망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요?

2) 일상생활 속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아픔을 농담처럼 말하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미디어에서 듣거나 본 내용을 적어도 좋습니다.)

2.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읽고 앞으로 내가 쓰지 않을 말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가 한때 쓰기도 했고, 여전히 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쓰지 않는 말들에 대한 글을 모으는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엔 <며느라기>의 수신지 작가, <일의 기쁨과 슬픔>의 소설가 장류진, <일간 이슬아>의 이슬아 작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황선우·김하나 작가 등 27명이 참여했다.

성교육 강사인 정한솔씨는 “암 걸릴 것 같다”는 표현에 대해 성찰했다. 정씨는 “그분(상대방)의 아내가 암에 걸리셨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시 완치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고 반성했다.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셨을텐데 이런 말을 내뱉다니”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확진자 · ○밍아웃 · 암 걸릴 듯... “나도 모르게 쓰던 차별의 언어, 이젠 그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71617001&code=940100#csidxda5ae720ab09c049895c00573abb13a

- 내가 앞으로 쓰지 않을 말:

.....

.....

.....

-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

.....

.....

【말하는 몸】

「일시 정지」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한 지점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거든. 복잡한 거, 어려운 거 그딴 거 다 사라져.”
 다연은 얼마 달리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다. 그런데 몸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달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숨이 차지만 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달의 방」

외로움이 깊어질 때면 나는 처음부터 없는 존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이 이상해진다. 편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발바닥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들썩이고 몸도 달뜨기 시작한다. 펄쩍펄쩍 뛰고 나면 조금은 괜찮아졌다. 학교에서 말 한 마디도 못할 때면 온몸이 답답하다. 그럴 때 심장을 기쁘게 만든다. 심장을 뛰게 해서 내 감정을 헛갈리게 한다. 그러다 보면 전에 없던 예민한 감각이 생기는 듯했다. 그 감각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 어느새 나는 뛰고 있었다.

그 아이도 나처럼 뛰기 시작했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던 우리는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래 보았자 좁은 옥상 마당이었지만 뛰면 뿔수록 몸에 열이 올라 추운지도 몰랐다.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파도를 만들 듯 흐물흐물 움직여도 보고, 발레리나가 된 듯 두 다리를 활짝 벌리고 허공을 날아올랐다.

「붉은 조끼」

몸이 높이 오를 때마다 어딘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달의 방』 속 작품들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내 몸의 변화를 인식했던 순간(경험)을 적어 봅시다.
 (이번 활동 ‘말하는 몸’은 박선영, 유지영이 지은 책 『말하는 몸』의 제목을 빌려 왔습니다.)

【영화로 만드는 이야기】

「일시 정지」, 「달의 방」, 「달 없는 우주」, 「붉은 조끼」, 「바람에 닿다」 중 한 편을 골라 영화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나요? 영화 포스터를 그려 봅시다.